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청소년비행 예측 요인의 발굴 *

엄명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청소년 비행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과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붕괴라는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청소년비행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강구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1997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청소년비행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나 비행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의 영향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채팅, 원조교제, 사이버 섹스, 게임 중독 현상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동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비행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그 빈도 및 강도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은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서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일본 청소년문제연구소, 1998)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비행 문제의 해결은 예방과 사후 대책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예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방활동은 청소년이 비행에 빠져들 수 있는 여건 및 환경 등을 미리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사후 대책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지도, 상담, 교육하거나 사회재활을 위한 교정활동 등을 통해 비행의 재발을 억제하는 활동이다. 청소년 비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사후적으로 비행을 범한 청소년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적용을 통한 통제가 확고히 실시되어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비행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 조치 없이 비행이 발생한 후 사회적 통제활동에만 주력할 경우, 사회 인력 및 예산의 엄청난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어떤 요인에 가장 시급히 개입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개입이 시급히 요청되는 비행 유발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신속히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비행 유발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하고 다양한 개입 및 예방 서비스를 마련하여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개입 및 예방 서비스 프로그램은 경험적 연구들이 밝혀낸 청소년 비행 유발 요인들에 기초해서 마련되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 가장 긴요한 첫 번째 작업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주변의 요소와 청소년 개인이 소지한 특성을 확인해내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었으나, 대개 비행을 행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요인들과 비행정도 또는 비행사실과의 상관 관계를 밝혀내는 일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 체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특히,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대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체계를 개인·심리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 친구체계로 보고 이들 체계와 관련된 요인들이 청소년 비행 집단을 구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각 체계와 관련하여 청소년비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다양한 개별 요소들을 기존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해 내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확인해 낸 각 개별 요소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청소년 집단을 “적발 비행집단”, “비적발 비행집단”, “일반 집단”의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한 후, 세 집단의 특성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들을 추출하려고 시도했다. 여기서 추출된 집단간 변별 요인들은 비행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구별해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행집단간 분류를 만족스럽게 해 내고 있는 요인들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비행이 우려되는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집단간의 차이를 만족스럽게 변별해 낸 변수들을 중심으로 세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획득된 자료들은 향후 비행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의 상황 및 특성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상황에서의 노출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우범 청소년이 곧 비행 청소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선도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비행과 단순 상관관계를 보이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시된 청소년비행 관련 요인들 중 가장 시급히 개입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제시한다는 면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하리라 본다.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문헌 연구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대개 가정, 학교, 친구집단, 개인성격 등의 결합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일련의 방향제시를 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예비적 개입을 통해 비행을 감소 내지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미흡했다. 또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사후에 조사하여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연구의 문제점은 어느 일부분에서 유사한 또는 동일한 가족, 학교, 친구집단, 개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비행에 빠져들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청소년 주변의 문제를 부분적, 표면적으로 서술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비행 집단과 비 비행집단간의 분리를 일으키는 일련의 요소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반응의 일단계 작업으로서 선행연구들이 살펴본 청소년비

행관련 요인들을 앞서 제시한 개인심리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 친구체계 등의 네 가지 체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심리체계 관련 요소들

비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요소는 낮은 자존감 또는 부정적 자아 개념이다.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비행 동료 집단과 어울려 자기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다(Kaplan, 1980). Levy(1997)는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30명의 오스트레일리아 학생 및 소년원 수감자들을 상대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비행 청소년과 무비행 청소년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자아개념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Kaplan(1980)이 정리한 이론적 토대에서 출발한다. 즉, 부정적 자아 개념은 비행을 촉발하는데, 비행은 자존감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Kaplan과 Robbins(1983)는 자아존중감과 비행 노출 빈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Leung과 Lau(1989)는 자아 개념의 다면적 차원 중 특히 낮은 학업 자아 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에서 류종관·강승호(1996)가 수행한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행동 특성 비교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특성 중 자존감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두 집단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과 공격성도 비행은 물론 범죄 행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동성과 공격성은 골수 비행자들(*hard-core delinquents*)에게서 일생동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다(Moffitt, 1993). 다분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며, 범행 자체도 살인, 강간, 강도 등의 강도가 높은 것들이다(전명희·오익수·김진희, 1995). 이 경우는 처음 저지르는 범행이라도 중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 청소년은 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입소하게 된다. 공격적인 성격의 초등학생이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치될 경우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민성길·박중규, 1998). 이재광 외(1987)는 청소년비행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이 갖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 및 태도 또는 공격성이 청소년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밝혀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앞서 언

급된 류종관·강승호(1996)의 연구에서도 충동성과 관련을 갖고 있는 자기통제감의 부족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별짓는 주요 행동 특성임을 지적하여 내적 자제력의 부족에서 비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가정관련 요소들

가정은 흔히 비행의 최전방 방어선(*frontline defense*)이라고 불린다. 가정 외적인 요소들은 청소년들의 비행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가정내의 부모 상태에 영향을 준 후 그것이 다시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것이다(Conger & Elder, 1994; McLoyd & Wilson, 1991). 예를 들어, 빈곤이나 가족 구조의 결손은 그 자체가 비행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들 가정의 부모가 나타내기 쉬운 적개심, 거부적 행위, 감독 소홀, 일관성 없는 억압적 훈육 등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zdin, 1987). 김준호 외(1989: 87~89)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유무와 비행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동·부모간 정서적 유대의 단절은 청소년의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내부 심리적 문제의 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icchetti & Toth, 1998). 이러한 아동·부모간의 유대 양상과 관련하여, Barnes와 Farrell(1992)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요소를 부모의 지지(*support*)와 통제(*control*)로 양분하여 개념화한 후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비행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부모의 지지라는 것은 Hirschi(1969)가 말하는 유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Hirschi(1969)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를 애착, 수용, 참여, 신념 등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유대가 무너지면 청소년비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유대라는 것은 부모·청소년이 서로 밀착되어 있는 정도, 부모가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도, 청소년의 원만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제공하는 정도, 위협이나 어려움 등으로부터 자녀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정도,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는 정도, 부모와 자녀들이 생활 공동체라는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도 등에 의해 대표되는 개념이다(Barnes & Farrell, 1992). 우리나라에서 김준호 외(1989: 131~136)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자

녀는 비행을 많이, 그리고 빨리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동일한 연구(1989: 137~139)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모든 유형의 비행빈도가 높게 그리고 시기에 있어 빨리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통제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먼저 훈육(*discipline*)이 포함된다.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훈육은 비행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부모의 가혹한 훈육과 청소년 비행과는 일반적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하에 놓여 있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일관성 있으면서도 엄격한 훈육이 오히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nes & Farrell, 1992). 예를 들어, 빈곤 지역 부모들의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삶의 사건들과 일상적 괴로움들은 부모의 애정, 지지를 감소시키고 짜증을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처벌 위주의 일관성 없는 훈육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Patterson, 1983; Patterson, DeBarsyshe & Ramsey, 1989). 특히, 잔소리, 욕설, 소리지르기, 구타 등이 동반된 강압적 훈육 양식은 비행 예방에 비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도 통제 개념에 포함된다. 청소년 자녀들이 어디서 누구와 만나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모하의 청소년들인 경우 비행 가담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Barnes & Farrell, 1992). 또한, 빈곤 및 기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심각한 정도의 애착 결핍을 보이고, 감독과 통제를 소홀히 하며, 자녀의 일에 관여하는 정도가 미약하여 청소년 자녀의 비행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ern & Smith, 1995).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로 설명하여 설득하는 식의 훈육도 좋지만 그보다는 부모가 자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비행 예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nes & Farrell, 1992). 이와 함께, 청소년이 바람직한 행위를 했을 경우 부모가 그 것을 알아주고 칭찬을 해주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벌을 제공하면서 적절한 상담과 지도 감독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 비행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재봉, 1990; 전명희, 1995; Barnes & Farrell, 1992).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김준호 외(1989:

99~101)의 연구에서는 권위형과 방임형의 부모를 둔 청소년들에게서 비행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비행시기도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 내의 의사소통 형태와 부모의 불화 정도도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김준호 외, 1989, 1991, 1995). 비행 가족집단의 가족 구성원들이 일반 가족보다 가족 내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서로 의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준호·김순형, 1995).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의 경우 가족구조 양상보다는 부모불화 정도가 더 높은 예측 능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이것을 뒷받침한다(이명숙·김영미, 1993). 즉, 부모불화로 인한 적대적 가정 분위기가 가정의 기능적 결손을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적대적 가정분위기에 기여하는 것이 언어 폭력이다. 언어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비행시기도 빨랐다(김준호 외, 1989: 96). 언어 폭력 외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등도 청소년 비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외, 1996; 김현수, 1998). 김준호 외(1996)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특히 상해 위험이 높은 폭력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에 비해 국외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가족 변인과 관련하여 통합적, 종합적 연구에 대한 요구가 돋보인다. 그 예로써 Smith and Stern(1997)은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후, 많은 연구들이 수많은 각기 다른 가족 내부 양상과 비행과의 연결을 살펴보았다고 지적하고, 이보다는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양상을 함께 한꺼번에 고려하는 모델이 비행 현상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 나가서, Hoge, Andrews, 그리고 Leschied(1994)는 가족 관계와 가족 구조뿐 아니라 부정적 동료와의 어울림, 반사회적 태도 등을 비행의 예측변수들로 보고 338명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 동료집단, 태도 변수들을 포함한 설명모델은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전반적으로 잘 예측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시도한 연구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으로 이어져 Shek(1997)은 최근에 중등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가족 환경, 개인 심리적 안녕 상태, 학교 적응상태 등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 양육 형태, 가족 기능, 부모와 청소년간의 갈등, 학

교 적응상태 등은 유의미한 정도로 청소년의 비행, 학교 적응, 심리적 안녕 상태와 관련되어 있었다.

3) 학교관련 요소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가정 다음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학교다. 백은순(1990)은 학생비행의 원인 중 학교의 결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 교사와 학생 사이의 소원한 관계, 학생들의 의사 및 욕구 표현 봉쇄 등을 들고 이러한 현상들이 서로 맞물려서 교육을 왜곡화, 기계화시키면서 비행이 야기된다고 주장하였다. Fraser(1996)는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문헌 연구에서 아동기에는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초기 청소년기에 올수록 학교 및 동료집단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의 평가 방식, 학급 운영 기술, 수업 전략 등이 학교와의 유대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유대감이 약할 경우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Fraser, 1996). O' Donnel 외(1995)도 학교의 전반적인 풍토, 수업방식 등이 학생의 교육적인 면에서의 기대,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업 성취,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 비행에 영향을 주는 학교관련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성적 :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소년 비행의 가능성이 크다(김준호 외, 1989: 113~117).
- ② 학교에 대한 애착(commitment/involvement) : 공부 및 기타 학교생활 참여도가 낮을 수록, 학교를 싫어할수록 비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노성호, 1991; 주옥한, 1995).
- ③ 공부에 대한 압력 : 부모나 선생님이 바라는 성적과 자신의 현재 성적과의 차이를 크게 느낄수록 비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경희·김병희, 1995).
- ④ 교사의 학생 수용 정도 : 학생들이 선생님을 학생의 가정 및 일신상 문제에 대해 상의해주는 교사, 학생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자상한 교사, 학생들의 의사 및 욕구 표시를 받아주는 교사로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은순, 1990).
- ⑤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인지하는 차별대우, 폭력

(신체, 언어) 사용, 무관심, 몰이해 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백은순, 1990).

- ⑥ 학생의 교사(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애착 : 학생이 교사에 대해 느끼는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 통제 가능성은 높았고, 교사에 대한 적개심이 클수록 비행 가능성 크게 나타났다(백은순, 1990; 주옥한, 1995).

4) 친구관련 요소들

청소년비행과 관련하여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비행친구 유무이다. 청소년비행화 과정에 대한 회귀모형 방법에 의한 분석에서 이익섭·김근식(1998)은 전체적으로 비행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변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일반지역의 청소년들은 학교변인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가족변인이 비행화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친다고 하여 차별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서 이동근 등(1985)은 비행 청소년의 비행동기 중 불량한 교우를 사귀므로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으며, 하회경(1982)도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정상집단에서는 부모인 경우가 월등히 많았는데 비해 비행집단에서는 친구라고 보고하여, 불량교우 동조의식이 비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비행친구 소유 여부는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 양육방식, 훈육방식 등의 변수보다도 비행과 더 의미 있는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남재봉, 1990: 91). 김준호 외(1989)의 연구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이 빈번히 그리고 이른 시기에 일어남이 확인된 바 있다.

5)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및 예측 연구들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학력 등이 청소년비행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위비행, 성비행, 폭력비행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비행이 최초로 일어나는 시기도 빠른 것으로 밝혀져 있다(김준호 외, 1989: 73~83). 이경희, 김병희(1995)도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청소년비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층에서 비

행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경제적 수준은 높고 사회적 지위는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청소년의 지위비행 및 폭력비행의 발생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교육이 고등학교 졸업 수준일 때 청소년비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은 중학교졸업, 초등학교졸업 순서로, 주로 아버지의 학력이 수준이 중간수준 또는 낮을수록 청소년자녀의 비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준호·김순형, 1995).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교육 정도와 비행 빈도와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유형, 즉 결손가정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김준호 외(1989: 87)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아버지의 유무와 비행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인 경우 가출의 빈도가 높고 가출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외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다. Cernkovich와 Giordano(1987)는 결손가족 구조와 가정의 역기능과는 상관이 없음을 밝혀냈다. 다만, 이혼이나 별거에 의해 편부모와 살게 된 청소년들은 사별에 의해 편부모와 함께 살게된 청소년에 비해 많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외, 1995).

청소년 비행 집단의 예측과 관련된 연구로서, West와 Farrington(1977)은 성인 비행과 반사회적 성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자기보고형 비행 성향 및 공격성향을 측정하여 비행 예측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후에 West(1985)는 비행 청소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태도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예측 지표 구성에 보다 포괄적인 변수들의 포함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재광 등(1987)이 청소년 비행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반사회적 성격 및 태도를 나타내는 변수만을 연구에 포함시켜 West(1985)가 제안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6) 정리

청소년의 비행은 위에서 살펴본 개인, 가정, 학교, 친구 체계 등의 관련된 변수들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변수들과 청소년비행의 상관관계는 그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비행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나타난 변수 값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모든 변수들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살펴본 여러 변수들 중 청소년비행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 내는 일은 예방 및 치료적 개입 점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 변수들 중 상대적 중요성을 띠는 변수들을 찾아내기 위한 한 방법은 이들 변수들 중 어떤 변수들이 청소년들을 ‘적발된 비행집단’, ‘적발되지 않은 비행집단’, ‘비비행집단’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잘 분리해 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들 판별변수들이 성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청소년을 둘러싼 몇 가지 중요한 현상 또는 특성에 초점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개된 개별적 연구들에서 밝혀진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청소년 비행 예측 지표를 구성하고 그에 바탕을 둔 개입 프로그램을 살펴본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3. 비행 현상 파악을 위한 개념적 틀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고 측정함에 있어 어떤 하나의 이론적 틀을 준거하기보다는 각종 이론적 요소들을 혼합한 통합적 체계 개념을 활용하였다. 비행의 원인을 개인·심리 체계, 가정 체계, 학교 체계, 친구 체계 등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통합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이론적 틀은 Elliott, Huizinga와 Ageton (1985), 그리고 Tremblay 외(1992)에 의해 일찍이 제안된 바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 개념 틀이라 할 수 있는 “환경 속의 개인” 개념이 나타내듯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각종 심리·행동 문제들과 청소년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다원 체계들 사이에는 역동적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청소년의 행동은 개인적 기질 및 대인관계 상호작용 스타일 등의 청소년 개인의 특성, 청소년의 직접 환경인 가정 체계의 특성, 청소년들이 생활해 가면서 주로 접하는 친구 체계, 학교 체계, 이웃 또는 지역사회 체계들의 특성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Stern & Smith, 1999).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발생 여부는 심리·성격 변수, 학교 관련 변수, 친구 관련 변수들간의 상호 작용이 어떤 가정 특성 내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네 가지 차원의 비행 관련 변수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규명하기보다는 이들 변수들 중에서 비행집단 분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리 변수들을 각 차원별로 확인해 내고자 하였다.

4.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청소년 집단을 적발된 비행집단(이하 적발비행집단), 적발되지 않은 비행집단(이하 비적발비행집단), 비 비행집단(이하 일반집단)의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한 후, 세 집단의 특성 차이를 발생시키는 청소년비행 관련 주요 요인들을 추출하려고 시도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서, 적발 비행집단은 중부권에 위치한 소년원 1개교와 소년교도소 1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비적발 비행집단은 서울 및 근교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 적발되지 않았지만 비행을 행하고 있는 학생청소년, 일반집단은 비행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청소년으로 하였다.

비적발비행집단과 일반집단의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 근교의 중학교 1개교, 서울 강북과 강남의 인문계 고등학교 각 1개교, 서울에 위치한 공업고등학교 2개교를 임의표본추출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별로 고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당 4학급, 중학교에서는 2, 3학년을 대상으로 5학급을 임의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관계자에게, 선정된 중·고등학교에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교감선생님, 학생지도주임 또는 상담주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종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각 표본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남성이 전체의 84.1%, 여성이 전체의 12.3%로서 남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남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표본의 구성

학 교 구 분	빈 도			
	남자	여자	무응답	합계 (%)
소년교도소	272	1	0	273 (19.4)
소년원	325	1	0	326 (23.7)
인문계고등학교(강북)	78	98	7	183 (13.0)
인문계고등학교(강남)	74	73	16	163 (11.6)
공업고등학교(1)	100	0	0	105 (7.5)
공업고등학교(2)	132	0	0	136 (10.5)
중학교	202	0	0	202 (14.4)
합 계 (%)	1,183 (84.1)	173 (12.3)	23 (1.6)	1,407 (100)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각 청소년집단에 대해 심리·성격, 가정 특성, 학교, 친구 등의 네 가지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응답형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대부분의 변수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표준화된 측정도구들이었고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는 경우는 본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로 본 연구를 위해 구성하였다. 표준화된 도구도 본 조사의 목적과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항목의 수와 표현을 다소 조정된 후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의 카테고리 변수를 제외한 기타 예측변수들은 모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예측변수(독립변수)는 위의 네 가지 요인에 속한 각종 변수들이며, 종속변수는 청소년비행집단이다. 각 예측 요인별 변수들의 내용과 현 연구를 통해 산출된 각 변수의 신뢰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 집단 중 비적발비행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김준호, 이동원(1996)이 개발한 청소년비행 척도를 이용하여 청소년비행 척도 상에 나타난 22개의 비행항목에 해당되는 비행을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을 일반집단, 한번 이상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비적발비행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조사도구(예측변수) 및 신뢰도

요 인	개별 변수	항목수	신뢰도 (α)	요 인	개별 변수	항목수	신뢰도 (α)
심리·성격	개인의 자존감	9	.83	학교 관련	학업적응	4	.83
	언어적 공격성	7	.76		적극 생활	4	.81
	신체적 공격성	4	.72		교사 관심	7	.81
	충동성	7	.76		학교 유용	6	.72
가정특성 (부모양육 태도)	과잉보호	13	.83		부모기대와 실제 성적의 차	2	-
	부모의 수용, 인정, 긍정적 확신	24	.94		자신의 기대와 실제 성적의 차이	2	-
	가족화목	7	.86	친구 관련	친구 애착	25	.93
	부모화목	3	.81		경찰연행 친구수	1	-
	의사소통	7	.84		근신 이상 처벌받은 친구수	1	-
	모니터링	5	.88		학교 친구 비행 정도	1	-
	부모 애착	25	.92	인구·사회 학적 변수	동거 상황	1	-
	규칙정도	실제수	-		나 이	1	-
	규칙준수	1	-		성 별	1	-
	설명통제	3	.67		종 교	1	-
	벌칙제재	3	.68		아버지의 학력	1	-
	폭력구사	13	.95		어머니의 학력	1	-
					가족의 경제 상황	1	-
			거주 지역 특성		1	-	
			이웃 환경	1	-		

3) 조사방법 및 과정

설문지는 자기 구술형으로써 모든 설문에 대해 청소년이 인지하는 상황에 기초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눈에 비친 상황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할 것이라는 인지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조사 도구들의 신뢰도, 타당도 및 질문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S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예측변수 측정도구들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 내용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조사는 1999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담당 교사를 면담하고 조사실시 요령을 전달한 후 학교의 교사가 각 교실에 들어가 설문지를 배포,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는 조사 실시요령 유인물을 동봉하여 조사 협조를 약속한 담당관에게 보내어 적절한 시간에 조사를 실시한 후 수거하여 우편으로 본 연구자에게 반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1,407명이었다(〈표 1〉 참조). 이 중에서 예측변수들 중 어느 한 변수에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524사례를 일차적으로 제외한 결과 총 883사례가 남았다. 제외된 524사례 집단과 남아있는 883사례 집단에 대해 주요 예측변수를 중심으로 변량분석을 해본 결과 대체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즉, 제외된 집단과 나머지 집단간에 주요 변수에 대해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중다변인분석의 가정들을 만족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다중 정상분포 및 다중 변량 동질성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예측변수가 정상분포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다중 변량 동질성 가정도 충족되지 않았다($p=.000$). 따라서, 통계 검증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청소년집단의 표본 크기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각 집단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 통계 분석에 있어서 제일종 오류(type I error)가 감소하고 통계적 검증력(power)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표 3〉은 판별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의 크기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비적발비행 집단의 최대 표본 크기가 231로써 다른 집단의 표본 크기에 비해 제일 작았기 때문에 각 집단 표본 크기를 231로 동일하게 통일하였다. 231개의 사례수는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 693사례가 판별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후의

1) Stevens(1986: 216)는 표집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 실제의 제일종 오류와 명목상 제일종 오류가 동일함을 여러 가지 모의 검증을 거쳐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표집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 중다변량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표 3〉 최종표본의 선정 과정

집단 구분	총 응답수	결측값 없는 사례수	최종 표본 크기
적발비행 집단	606	333	231
비적발비행 집단	365	231	231
일반집단	436	319	231
합 계	1,407	883	693

통계분석 결과는 이 693 사례에 기초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각 예측변수들이 청소년비행 집단별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여러 예측변수들이 청소년비행 집단을 어느 정도 잘 분리해 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을 판별함수 추출집단과 검증집단으로 나눈 후 추출집단을 갖고 단계별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증집단을 갖고 판별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도 판별 기준은 0.05이었다.

5. 분석결과 해석 및 논의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청소년비행 집단별로 나누어 〈표 4〉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보아 적발비행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나이가 비적발비행 집단이나 일반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나이보다 많았다. 적발비행 집단에는 여자가 없었으나 이것은 실제 여성 적발비행이 없다기보다는 표본의 추출이 남성이 주로 있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학력 분포를 보면 적발비행 집단을 제외하고는 중·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부였고, 적발비행 집단의 경우 중학재학 이하에 속하는 청소년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고등학교 중퇴자들이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재학중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또는 소년 교도소가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집단 구분			평균/합계	p 값
		적발비행	비적발비행	일반집단		
나 이		18.1	16.0	15.6	16.5	.000 (t-검증)
성 별	남자	224	188	163	575	.000 (χ^2 검증)
	여자	0	38	66	104	
학 력	중학재학 이하	87	45	78	210	.000 (χ^2 검증)
	중학 졸업	27	0	0	27	
	고교 재학	15	183	153	351	
	고교 중퇴	77	0	0	77	
	고교 졸업 이상	21	0	0	21	
경제 상황	호화 부유	9	6	6	21	.000 (χ^2 검증)
	부유	13	14	4	31	
	상위 중산층	56	83	99	238	
	하위 중산층	99	100	108	307	
	빈곤	25	18	10	53	
	극빈	29	10	4	43	
이웃 환경	상업 지역	16	13	14	43	.032 (χ^2 검증)
	유흥가 지역	26	18	12	56	
	주택 밀집 지역	148	181	196	525	
	공업지역	8	3	0	11	
	기타	33	16	9	58	

지 은 청소년들이므로 추정된다. 표본 전체의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하위 중산층에 속한 청소년이 제일 많았으나 적발비행 집단에는 호화 부유층과 부유층, 그리고 빈곤층과 극빈층에 속한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이 경희(1995)의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높다고 밝힌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다.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곳의 이웃 환경으로는 전반적으로 주택밀집지역이 제일 많았으나 적발비행 집단에는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유흥가 지역에 사는 청소년이 많았다.

2) 단계별 판별분석

(1) 주요 예측변수 추출 및 판별함수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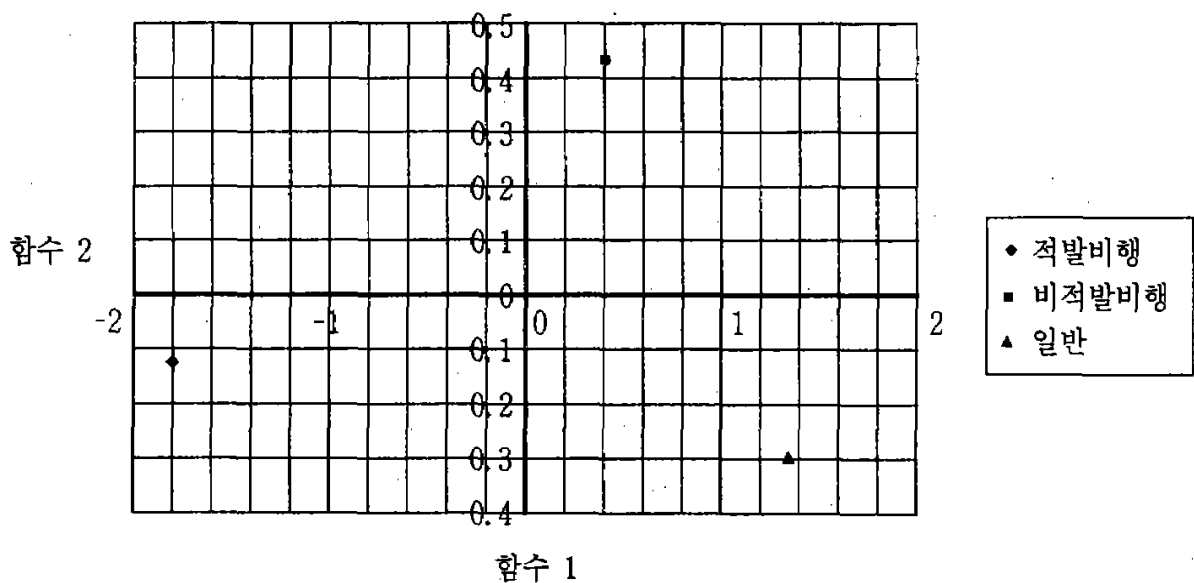
단계별 판별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 35개의 예측 변수(〈표 1〉 참조)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세 개의 청소년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였다. Wilks' Lambda(0.34332)에 의한 검증에서 포괄적 유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0$). 따라서 세 개의 비행집단은 35개의 변수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5개의 변수를 개별적으로 세 집단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자존감($p = .140$), 과잉보호($p = .094$), 주변주거환경($p = .121$)에서만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뿐 나머지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어떤 예측변수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그 변수가 곧 세 집단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는 아니다. 이는 각 예측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 변수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판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 산정을 위한 과정으로 들어갔다.

예측(독립) 변수들 중 중요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구성된 판별함수가 청소년들을 적발비행집단, 비적발비행집단, 일반집단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분리해 내는가를 알아보려면 초기 판별함수 추출에 사용된 추출집단과 판별함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증집단이 상이해야 판별의 정확성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비행집단 표본수($n = 231$)의 약 60% 정도의 자료수($n = 131$)를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판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 산정을 위한 추출 표본으로 사용했고 각 집단의 나머지 자료들($n = 100$)은 나중에 판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판별함수는 최대한의 집단분리를 일으키는 기능을 갖춘, 예측(독립) 변수들의 선형결합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집단이 존재하므로 단계별 추출방식에 의해 두 개의 판별함수가 추출되었다. 첫 번째 판별함수는 한 집단을 나머지 집단과 분리해 내고 두 번째 판별함수는 남은 집단을 분리하는 작용을 한다. 총 35개의 예측 변수 중 14개의 변수만이 의미 있는 판별 변수로 선택되어 판별함수에 포함되었다. 이 14개의 변수는 청소년비행 집단을 세 개로 구분하는 데 있어 모든 변수(총 35개)를 모두

고려할 때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보통이다(Hair, Anderson, & Tatham, 1987: 87). 추출된 판별함수 모두는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제1 판별함수: $p = .000$, Wilks' Lambda = 0.334, chi-square = 414.319, $df = 28$ /제2 판별함수: $p = .001$, Wilks' Lambda = .910, chi-square = 35.483, $df = 13$). 첫 번째 판별함수는 전체분산의 94.6%를 차지했고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는 .796이었다. 이것은 판별기능의 63%가 적발비행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구분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두 번째 판별함수는 전체분산의 나머지 5.4%를 차지했고 정준상관계수는 .3이어서, 판별의 9% 정도가 비적발비행집단과 일반집단의 구분에 의해 설명됨을 보여주었다. 판별함수 1, 2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여 세 집단의 중심점을 <그림 1>에 제시했다. 최종 선정된 변수별 표준화된 판별함수 계수와 구조행렬²⁾을 <표 7>에 제시했다. 판별함수에 포함된 변수들이 판별함수의 판별능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판별함수가 집단 분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내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판별함수의 집단간 분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판별함수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판별함수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림 1> 함수의 집단 중심점



2) 판별변수와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간의 집단-내 통합 상관행렬, 즉 상관계수를 의미함.

(2)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분류의 정확성

추출된 판별함수가 실제의 청소년들을 세 개의 비행관련 집단으로 얼마나 잘 분류해 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식 도출에 사용되지 않은 유보집단($n=300$)을 사용하여 판별 정확도(hit ratio)를 살펴보았다. <표 5>에서 실제집단과 관련된 자료는 청소년들이 현재 세 개의 비행관련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실제 상황을 의미하고 예측집단과 관련된 자료는 추출된 판별함수에 의거해 청소년들을 예측 분류해 낸 결과이다. 대각선상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판별함수가 청소년들은 정확히 분류한 경우와 확률을 나타내주는 숫자이다.

추출에 사용된 집단을 갖고 예측 정확도를 검증했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72.4%³⁾의 정확한 분류 비율을 나타낸 반면 유보해 두었던 집단을 갖고 예측 정확도를 검증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67.6%⁴⁾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판별함수의 추출에 사용된 사례들이 다시 추출함수의 정확성 검증에 사용될 경우 검증정확도가 실제 정확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판별함수의 실제적인 판별정확도는 67.6%라고 볼 수 있다.

이 판별 정확도는 세 집단으로 판별 분류할 경우에 있어 매우 높은 정확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별함수에 의한 예측분류의 정확도가 우연에 의한 분류 시 나타나는 정확도(C_{pro} 또는 C_{max})⁵⁾보다 그 우연 발생 정확도의 25%정도 이상의 크기를 보이면 사회과학에서는 매우 우수한 정확도라고 판단된다(Hair, Anderson, & Tatham, 1987: 90). 본 연구에서는 C_{pro} 가 33.3%, C_{max} 가 33.8%이었으므로, 판별함수에 의한 hit ratio가 42.3%보다⁶⁾ 크게 나타날 경우 판별함수의 예측 정확도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t ratio가 67.6%로 나타났으므로 추출된 판별함수에 기준하여 청소년을 적발비행, 비적발비행, 일반집단으로 예측 분류

3) hit ratio (%) = 정확히 분류된 사례수를 전체 분류대상 사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여기서 $\{(106 + 72 + 102) / (128 + 129 + 130)\} \times 100$.

4) $\{(76 + 44 + 80) / (97 + 99 + 100)\} \times 100$

5) C_{pro} 는 각 집단의 표본 크기에 비례하여 우연에 의한 hit ratio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표본 크기가 같을 경우 $1/n$ (n =집단의 수)이다. 3개의 집단일 경우 33.33%가 된다. C_{max} 는 크기가 제일 큰 집단에 분류대상 표본 모두를 배치 분류했을 경우 나타나는 hit ratio이다. 이 연구의 경우 각 집단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여 C_{pro} 값과 유사하나 정확히 하면 $(100/296) \times 100 = 33.8\%$ 이다.

6) $33.8\% (C_{max}) + (33.8 \times .25)\% = 42.25\%$

〈표 5〉 판별함수의 검정 정확도 검증 결과

실제 집단 현황			예측에 의한 집단 분류 결과		
통계집단 구분	비행집단 구분	집단 구성원	적발비행	비적발비행	일 반
추출에 사용된 집단	적발비행	128	106 (82.8%)	18 (14.1%)	4 (3.1%)
	비적발비행	129	17 (13.2%)	72 (55.8%)	40 (31.0%)
	일반집단	130	3 (2.3%)	25 (19.2%)	102 (78.5%)
검증에 사용된 집단(유보집단)	적발비행	97	76 (78.4%)	14 (14.4%)	7 (7.2%)
	비적발비행	99	24 (24.2%)	44 (44.4%)	31 (31.3%)
	일반집단	100	3 (3.0%)	17 (17.0%)	80 (80%)

할 경우 매우 높은 정확도를 예상할 수 있다.

〈표 5〉에서 유보집단을 사용해 얻은 집단분류 예측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을 추출된 판별함수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할 경우 청소년을 일반집단으로 정확히 분류할 확률이 80%로 가장 높았고, 적발비행집단으로 정확히 분류할 확률은 78.4%로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에 청소년을 비적발비행집단으로 정확히 분류할 확률은 44.4%에 그쳐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 수치도 앞서 살펴본 hit ratio의 만족 수준인 42.3%를 초과하고 있어 판별함수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분류보다는 정확도가 높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출된 판별함수에 의한 경우 일반집단과 적발비행집단은 매우 우수하게 분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3) 판별함수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 판단

본 연구에서 추출된 판별함수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판별능력을 갖고 청소년을 적발비행집단, 비적발비행집단, 일반집단으로 분류해낼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판별함수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판별분석을 하기 위해 투입한 모든 변수들과 추출된 판별함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볼 때 판별함수 1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인 변수는 '경찰에 연행된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565)이었고, 그 다음이 '학교 친구의 비행정도'(-.430)였다. '아버지의 최종학력(.364)'도 판별함수 1과 큰 상관을 보였다. 판별함수 2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인 변수는 '학생이 인지한 학교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727)이었고, 그 다음이 '청소년이 부모에게서 느끼는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애착정도'(.520)이었다. 몇 개의 변수들(예: '어머니의 최종학력', '학교에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친구의 수', '부모의 기대 성적과 실제 자신의 성적과의 차이' 등)은 판별함수 1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별함수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판별함수 2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판별함수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도 보였다. '부모의 수용, 인정, 긍정적 확신', '청소년이 느끼는 학교의 유용성 정도', '가정내의 의사소통 양상', '가족 화목 정도'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판별함수 1, 2에 포함된 다른 변수와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연구들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청소년의 자존감, 청소년의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규칙 설정을 통한 청소년 행위 통제, 부모가 청소년을 벌로 혹은 설명을 통한 설득으로 다스리는가의 여부, 부모가 청소년의 소재 및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정도 등은 판별함수 1, 또는 판별함수 2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여 청소년을 3개의 비행 집단으로 구분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함수 1의 성격은 개략적으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 또는 청소년의 외적 요인으로 묘사될 수 있다. 주로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판별함수 2는 청소년 자신이 느끼는 주변의 자신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관적·정서적 상황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표 6〉은 최종적으로 판별함수에 포함된 변수들과 그 변수들이 청소년들을 3개의 비행집단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는데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개략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계수(*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coefficient*) 중에서 절대수치가 큰 값을 가진 변수가 작은 값을 가진 변수에 비해서 판별함수의 판별능력에 많은 기여를 한다. 절대수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진 변수는 함수의 판별능력과 관계가 없거나 다른 변수와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상쇄되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구조행렬은 판별함수에 포함된 변수와 판별함수간의 상관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판별변수와 판별함수와의 공유분산 정도를 반영한다.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각 판

〈표 6〉 판별함수 변수별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및 구조행렬

판별함수 변수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 계수		구조행렬	
	함수 1	함수 2	함수 1	함수 2
충동성	.167	-.026	.205	-.152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애착 정도	.295	.516	.046	.520
부모가 정한 규칙준수 정도	.228	.275	.262	.042
부모 폭력의 정도	.423	-.005	.220	-.269
학업적응력	-.236	.117	-.253	.343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관심	.238	.592	.112	.727
자신의 기대와 실제 성적과의 차이	-.174	.180	-.234	.267
경찰에 연행된 경험 있는 친구의 수	-.558	.387	-.565	.287
학교친구의 비행정도	-.268	-.287	-.430	-.125
함께 살고 있는 가족*	-.251	-.041	-.246	-.110
종교*	.200	.155	.207	.187
아버지의 학력	.376	-.053	-.430	.020
가정의 경제적 지위	.193	-.108	-.103	.005
주거 주변 환경*	-.203	.222	-.104	.080

주: * 구분 변수(categorical variable).

별변수의 판별함수에 대한 기여도 또는 집단판별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구조행렬이 보다 신뢰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Hair, Anderson, & Tatham, 1987: 91). 이 두 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소년이 어떤 친구와 사귀고 있는가, 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가, 부모가 청소년에게 보이는 애착, 사랑, 수용 등이 비행집단 판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과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 정도도 비행청소년 집단 판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각 비행집단의 판별함수 변수별 특성

비행 집단별 판별함수 변수의 평균값 비교를 통해 각 비행집단의 특성을 서술할 수 있다. 〈표 7〉에 판별함수 변수들의 집단별 평균값을 제시했다. 동거 가족, 청소년의 종교, 주거 주변환경 등은 구분변수(categorical variable)로서 평균값이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평균값 대신 빈도를 〈표 8〉, 〈표 9〉, 〈표 10〉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7〉, 〈표 8〉, 〈표 9〉, 〈표 10〉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청소년비행 집단의 특성을 묘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적발비행집단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가정이 설정한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으며,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한 폭력을 사용했다. 또한, 적발비행집단의 청소년은 학

〈표 7〉 주요 판별함수 변수의 청소년비행 집단별 평균값

변 수	집단 및 평균		집단별 평균값		비 고
	적발비행	비적발비행	일반집단		
충동성	17.9922	19.6977	21.1692		낮을수록 충동적
부모의 청소년에대한애 착정도	60.1641	66.6512	61.1615		낮을수록 애착수준 높음
규칙준수	2.7031	3.2481	3.4538		높을수록 규칙준수 잘함
부모 폭력의 정도	51.7813	55.4496	60.0692		낮을수록 폭력 심함
학업적응력	12.4141	11.1318	9.3385		낮을수록 적응 잘함
교사의 관심	19.6797	23.3023	20.9692		낮을수록 긍정적
자신 기대와 실제 성적의 차이	3.2422	2.4961	1.6154		실제 수
경찰에 연행경험 있는 친구 수	4.4219	2.6434	1.3769		실제 수
학교친구의 비행 정도	2.25	1.4109	1.1385		높을수록 비행정도 큼
아버지의 학력	5.3203	7.4419	8.3385		높을수록 고학력
가정의 경제적 지위	3.9141	3.6899	3.5846		높을수록 극빈 가정

〈표 8〉 비행 집단별 동거 가족 빈도

동거 가족 구분		비행집단구분			전체
		소년원, 교도소	경험학생	비경험학생	
동거 가족	부모와 동거	82	164	183	429
	편부모와 동거	46	11	6	63
	친조부 또는 친조모와 동거	17	5	1	23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동거	4	1	0	5
	친부모와 조부모(친, 외) 동거	36	40	34	110
	편부모와 조부모(친, 외) 동거	17	2	3	22
	부모 계부모 또는 조부모 이외의 자와 동거	29	8	4	41
	전 체	231	231	231	693

〈표 9〉 비행집단별 종교 빈도

		비행집단구분			전 체
		소년원, 교도소	경험학생	비경험학생	
종 교	개신교	70	44	41	155
	천주교	40	37	29	106
	불 교	62	42	51	155
	유 교	4	1	0	5
	이슬람교	3	4	1	8
	없 음	52	92	96	240
	기 타	0	11	13	24
전 체		231	231	231	693

〈표 10〉 비행집단별 주거 주변 환경 빈도

		비행집단구분			전체
		소년원, 교도소	경험학생	비경험학생	
주변 환경	상업지역	16	13	14	43
	유흥가 근접지역	26	18	12	56
	주택 밀집지역	148	181	196	525
	공업지역	8	3		11
	기 타	33	16	9	58
전 체		231	231	231	693

업 적응력이 매우 낮았으며 자신의 기대와 실제 성적 간에 큰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찰에 연행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적발비행집단에 속한 청소년 주변에 많았다. 학교에서 사귀는 친구들의 비행 정도도 다른 집단의 친구들에 비해 심했다. 아버지의 학력은 세 집단 중 제일 낮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가장 열악했다. 적발 비행 청소년에 대해 그들의 부모가 갖는 애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비행을 저지르고 난 후 부모의 애뜻한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특이한 것은 교사가 적발비행 집단 청소년들에게 가져주는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인데 이것은 정규학교의 교사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현재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서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적발비행집단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편부모와 동거,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동거, 또는 편부모와 조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것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바로 기능적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대개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집단 청소년에 비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을 믿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입소 후 종교를 권유받고 각종 종교를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적발비행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유흥가 근접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생활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는 주변환경의 영향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비적발비행 집단의 청소년들은 세 집단 중 여러 가지 변수 측면에서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충동성, 가정 내 규칙준수의 정도,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정도, 학업적응력, 자신의 기대와 실제 성적과의 차이, 경찰에 연행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학교 친구의 비행정도,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지위 등에서 세 집단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 특이한 것으로서, 비적발비행 학생들은 학교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가져주는 관심이 가장 낮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그들에게 느끼는 애착의 정도 또한 가장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적발비행 집단 학생들은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친부모, 조부모, 자신들의 3대 가정 출신이 많았다.

일반집단 학생들은 자신들이 부모가 자신들에게 느끼는 애착 수준과 학교 교사가 자신들에게 가져주는 관심이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을 빼고는 모든 변수들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였다. 즉, 비행을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학생들은 비충동적이며, 가정에 존재하는 규칙을 잘 지키며,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으며, 학업에도 잘 적응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실제 성적과의 차이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는 친구의 수도 가장 적었다. 일반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주로 건전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아버지의 학력도 가장 높았고 이들 가정의 경제적 수준도 가장 높았다. 일반집단 학생들은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이한 것은 타 집단 청소년에 비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많았다. 주거 주변지역도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6. 정리 및 결론

현재까지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비행 관련 변수들을 심리·성격 관련 변수, 가정관련 변수, 학교관련 변수, 친구관련 변수,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 분류한 다음, 이들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청소년들을 적발비행집단, 비적발비행집단, 비행이 없는 일반집단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분리시키는 주요 판별함수 변수들을 확인해 냈다. 총 35개의 투입변수 중 14개의 변수만이 최종 판별함수에 포함되었다. 이들 14개의 변수들의 선형결합체인 판별함수가 비행집단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 판별해 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식 추출에 사용되지 않았던 유보집단을 갖고 검증해 보았다. 판별함수의 집단분류 정확도는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14개의 청소년비행관련 주요변수에 주목하여 청소년비행을 예견, 예방, 또는 개입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선행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청소년비행 관련 변수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청소년비행 위험집단을 구분해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영향을 주더라도 그 힘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또는 단편적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 확인되어왔던 청소년비행관련 변수들 중에서 비행집단 판별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를 실증적으로 구별해낸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유효한 판별함수 변수로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심리·성격 체계 관련변수가 1개(충동성), 가정체계 관련변수가 3개(부모의 애착정도, 가정에서 규칙 준수 정도, 부모의 폭력에 의한 자녀 통제), 학교체계 관련변수가 3개(학업적응력, 학생에 대한 학교교사의 관심도, 자신의 기대와 실제 성적과의 차이), 친구체계 관련변수가 2개(경찰에 연행된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학교친구의 비행정도),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4개(종교, 아버지 학력, 가족의 경제 상황, 이웃 환경)로 나타났다. 이로써 청소년의 행동은 개인적 기질 및 대인관계 상호작용 스타일 등의 청소년 개인의 특성, 청소년의 직접 환경인 가정 체계의 특성, 청소년들이 생활해 가면서 주로 접하는 친구 체계, 학교 체계, 이웃 또는 지역사회 체계들의 특성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청소년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부족한 가정 하에서, 부모가 나름대로 설정한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생활하다가 부

모의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청소년비행 가능성에 노출된다. 이러한 청소년이 학교에 가서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선생님의 관심 밖에 놓이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자신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주변의 비행친구들이 접근하게 되고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청소년은 본격적인 비행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주거 주변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진 아버지는 안정된 직장으로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어 있을 것이며, 주거 전용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비행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비행을 막을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청소년비행 위험 요인에 대한 진단, 예방, 그리고 대책은 개인의 성격, 가정의 역동성, 학교에서의 관심, 사귀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요소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한꺼번에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각각의 영역들은 독특한 방식과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적인 요소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심리 성격 체계에서는 공격성보다도 충동성이 유의한 판별변수로 드러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 또는 분노 조절의 어려움이 비행 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유성경 외(1999: 39)의 심층면접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충동성은 많은 부분 기질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Moffitt, 1993). 기질적인 요인은 유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태아기 임신부의 영양상태나 약물복용 등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기질 상태 결정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어린이가 이미 충동성을 갖고 있는 아이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기 개입하여 적절한 충동조절 훈련을 제공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민성길(1997)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통제 불능으로 여겨지는 아동들을 조기 발견해 교육, 치료할 경우 청소년 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정, 학교, 이웃 등의 환경이 악조건 하에 있으면 이러한 심리·성격적 문제들은 대개 확산되어 변화 또는 향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Moffitt, 1993). 따라서, 우선적으로 부모들로 하여금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가족 관련 요소들을 가정 내에

서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입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가정에서 청소년비행 발생이 높게 나타난 점은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는 박성수(1995: 19)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아버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김용태(1997: 25)는 이러한 지적 결함이 비합리적 기대를 포함하는 부모의 지적 기능 전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지적 기능에 결함이 있을 때 부모는 변화하는 사회와 청소년 자녀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공동 적응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 보충하거나 이루려하는 대리 성취 욕구가 발동할 경우 부모는 자녀들이 달성하기 힘든 목표 성취를 요구하거나 기대한다. 부모가 변화된 자녀의 욕구는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자녀에 대해 과도한 성취 요구를 할 때 청소년들은 충동, 불안,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표출할 수 있는 반면, 부모는 자신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폭력에 호소할 수 있다(김용태, 1997: 27). 따라서, 부모의 사회변화 및 자녀 변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을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서적 지지는 물론 긍정적인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단적, 도구적 지지를 부모들에게 제공할 경우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되고 우울증이 예방되며 아동-부모 간의 상호 작용이 원만해지고 따라서, 아동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Loyd, 1998). 하지만,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 우울 등의 상태가 부모 자신이 갖고 있는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갖가지 역경들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될 경우 부모 대상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통합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가족지지 서비스, 가족 권능부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부모로 하여금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훈련의 제공 등의 무형 서비스와 함께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형의 구체적 서비스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한 자원의 발굴 및 연결, 옹호(advocacy) 서비스를 통해 가정 권익을 대변하는 적극적인 활동 서비스들이 위의 교육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업과 함께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비행 청소년들은 학교의 친구들로부터의 편견이나 낙인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1999). 또한 통제, 억압적 학교 분위기로 인해 불안 및 우울 성향을 보였다. 비행 청소년들은 학업 능력에서도 전반적으로 뒤쳐졌다. 유성경 외(1999: 39)의 연구사례에서도 학교관련 요인 중 나쁜 성적 또는 성적하락이 가장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학업 능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온다고 볼 때 앞서 살펴본 부모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교를 공부만을 강요하는 불쾌한 장소가 아닌 청소년기를 유익하고 폭넓게 보내며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쾌한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학교의 교사들도 여유를 갖고 학생을 전인적인 면에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전체 사회의 현상과 맞물려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변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현 상황의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학교에 학생 개인 문제, 학생의 가정 문제, 학생과 교사 또는 학교와의 문제에 두루 개입하여 중재 및 조정 또는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두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학교 내에서 청소년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인력간에 긴밀한 연결·원조 체계의 형성이 필요한데(성민선·이상균, 2000: 245),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학교 내에서 활동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지속적이다. 청소년비행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친구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행청소년이 비행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인지 비행친구가 비행청소년을 만드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비행화 과정은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고 본다. 즉, 비행 위험 요소를 공유한 청소년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일단 어울려서 유대가 형성되면 과감한 비행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과거 비행에서 벗어나 건전한 생활을 되찾은 청소년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자신이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한 행동을 후회하며 자신이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유성경 외, 1999: 44). 이를 통해 볼 때,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친구집단이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행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청소년 집단과 어울리기 전에 빨리 포착하여 비행 친구 집단과의 어울림 외에 더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안적 행위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방 전략들은 상호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한 체계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요소들이므로 그에 대한 예방 및 문제 해결도 다양한 체계들을 대상으로 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의 삶의 공간과 관계 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문제 중심의 서비스 기관들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기관들간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문제 해결 노력이 아직 활발히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떤 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통합된 서비스 내용을 마련하고 그의 실천을 위해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청소년회관, 청소년상담원, 또는 종합복지관의 청소년사업팀 등을 통합적 개입 주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지역마다 청소년문제에 예방 및 해결에 지도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관들을 조사·발굴하여 그 기관을 통합적 개입 주체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이 통합적 개입 주체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면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요인들은 한편으로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합적,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청소년비행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준호·김순형.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 1991. 《청소년비행의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 1993.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 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 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수. 1998. “청소년 비행행동의 판별요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37권 3호, pp. 483~491.
- 류종관·강승호. 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행동특성 비교연구.” 《교육연구》 제6권, pp. 211~244.
- 민성길. 1997. 《중앙일보》 1997. 12. 18. p. 34.
- 민성길·박중규. 1998. 《세계일보》 1998. 12. 28. p. 15.
- 박성수. 1995. “빗나간 청소년의 세계.” 《빗나간 아이들의 세계》. 청소년대화의 광장.
- 박현선.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7호, pp. 195~216.
- 백은순. 1990. “중등학생 비행에 관련된 학교 요인 연구.” 《한국교육》 제17권, pp. 233~246.
- 성민선·이상균. 2000. “청소년폭력과 학교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학교사회사업》 제3권, pp. 223~248.
- 유성경·안희정·이소래·오익수. 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경희·김병희. 199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비행과의 관계.” 《교육연구》 제5권, pp. 95~119.
- 이동근·이상연. 1985. “비행청소년의 환경요인 및 다면적 인성검사에 의한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4권 3호, pp. 413~420.
- 이명숙·김영미. 1993. “가족구조와 부모불화가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6권 2호, pp. 201~216.
- 이익섭·김근식. 1998. “청소년 비행화과정에 관한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5권, pp. 319~344.
- 이재광·기백석·이길홍·민병근. 1987. “청소년 비행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의대지》 제12권 1호, pp. 179~194.
- 전명희·오익수·김진희. 1995. “청소년 비행화 과정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3권, pp. 9

1~113.

주옥한. 1995.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학교환경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하회경. 1982. "청소년비행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1권 2호. pp.237~254.

Barnes, G. M., & M. P. Farrell.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November. pp.763~776.

Cernkovich, S., & P. Giordano.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pp.295~321.

Cicchetti, D., & S. L. Toth,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 pp.221~241.

Conger, R. D., & G. H. Elde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Aldine de Gruyter.

Elliot, D. S., D. Huizinga, & S. S. Ageton.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CA: Sage.

Fraser, M. W. 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41(4). pp.347~361.

Hair, J. F., R. E. Anderson, & R. L. Tatham. 1987. *Multivariate Data Analysis*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Pacific Grove: CA: Univ. of California Press.

Hoge, R. D., D. A. Andrews, & A. W. Seshied. 1994. "Tests of Three Hypotheses Regarding the Predictors of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5). pp.547~559.

Kazdin, A. E. 1987. *Conduct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Kaplan, H.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Kaplan, H. B., & C. Robinson. 1983. "Testing a General Theory of Deviant Behavior in Longitudinal Perspective." in K. T. Van Dusen, and S. A. Mednick (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Kluwer-Nijhoff, Boston.

Leung, K., and S. Lau. 1989.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8. pp. 345~359.
- Levy, K. 1997. "The Contribution of Self-concept in the Etiology of Adolescent Delinquent." *Adolescence*, 32(127). pp. 671~687.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pp. 185~204.
- McLoyd, V. C., & L. Wilson. 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 102~135). New York: John Wiley & Sons.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pp. 647~701.
- O'Donnell, J., J. D. Hawkins, & R. D. Abbott. 1995. "Predicting Serious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mong 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pp. 529~537.
- Patterson, G. R. 1983.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McGraw Hill. pp. 235~264.
- Patterson, G. R., B. D. DeBaryshe, & E. Ramsa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pp. 329~335.
- Shek, D. T. L. 1997.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A Pioneer Study in a Chinese Contex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1). pp. 113~128.
- Smith, C. A., & S. B. Stern,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71(3). pp. 382~421.
- Stern, S. B., & C. A. Smith. 1999.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ntisocial Behavior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Delinquency Intervention." *Families in Society*, 80. pp. 169~181.
- Stevens, J. 198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remblay, R. E., B. Masse, D. Perron, M. LeBlanc, A. E. Schwartzman, & J. E. Ledingham. 1992. "Early Disruptive Behavior, Poor School Achievement, Delinquent Behavior, and Delinquent Personalit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Struc-

tural and Functional Factors." *Criminology*. 26. pp. 235~261.

West, D. J. 1985. "Delinquency." in M. Rutter & L. Hersov(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Modern Approaches*, Oxford: Blackwell.

West, D. J., & D. P. Farrington. 1977. "The Delinquent Way of Life. Third Report of The Cambridge Study." *Delinquent Development*(1st ed.), London & Edinburg: Morrison & Gibb.

Identifying the predictor variables of juvenile delinquency for the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s

Um, Myung-Y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to determine which variables play key roles in distinguishing among 3 mutually exclusive delinquent groups — disclosed delinquency group, closed delinquency group, and no delinquency group — and to develop a procedure for predicting group membership for new cases whose group membership is undetermined.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the review of previous empirical studies, which were identified a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The variables can be classified as character-related variables, family-related variables, school-related variables, peer-related variable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A sample of 693 youths were employed to conduct the statistical analysis. Out of 35 possible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14 variables were included in the pool of predicting variables. This study used a hold-out sample (n=300) to test if the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classify cases correctly into one of 3 groups. The percentage of cases classified correctly by the discriminant function was turned out to be acceptable in the area of social science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in terms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with focus on the 14 predictor variables.